

장흥 회진 100억대 '바다의 로또' 새조개 채취권 분쟁

여수 잠수기조합-신덕 어촌계 다툼 잠수기조합 내 조합원간에도 갈등 전남도 관리수면 지정 승인' 지연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자연산 새조개(사진)가 10여 년만에 장흥 회진 앞바다를 찾아왔다. 100억 원대를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하지만 어촌계와 잠수기조합 간, 잠수기조합 협의체 간 분쟁으로 새조개를 채취하지 못하고 있다.

15일 장흥군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 회진 연안에 새조개가 찾아왔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난 10월 회진 연안 178ha를 대상으로 '새조개 자원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새조개 자원량이 최대 1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산 새조개의 채취를 위해 어장을 관리하는 회진면 신덕어촌계는 전남도에 관리수면 지정 신청을 한 상태다.

하지만 어촌계와 새조개 채취권을 가지고 있는 여수잠수기조합 간 지분 다툼과 잠수기조합 협의체 간 이익금 배분을 놓고 분쟁이 일면서 관리수면 지정이 보류되고 있다.

자연산 새조개는 현행 수산업법에 따라 잠수기

조합으로 구성된 허가받은 '다이버'나 '형망(자루 모양의 그물)'으로만 채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리수면 지정을 받은 어장주인 어촌계와 채취권을 가진 잠수기조합은 이익금을 나누게 된다. 일반적으로 어촌계가 30%, 잠수기조합이 70%의 지분을 갖는데 장흥의 경우 거러·어획량 등 경제성을 고려해 잠수기조합 측이 지분 8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수기조합 내 협의체 간 이익금 배분 문제도 관리수면 지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잠수기조합에는 '상조화', '선친회(선장 모임)', '다친회(다이버 모임)' 등 3개 협의체가 있는데, 이들 협의체 간에도 이익금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잠수기조합 내부 갈등에 따라 어촌계와 지분 합 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같이 새조개 채취권을 놓고 다툼이 일자 전남도와 장흥군은 관리수면 지정을 보류했다. 잠수기조합 3개 협의체 간, 조합과 어촌계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리수면 지정을 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장흥군이 '잠수기조합 내 분쟁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여수에 거주하는 비 수산인 J모(67)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어촌계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신주 장흥군 해양수산과장은 "새조개 채취를 둘러싸고 투기꾼들의 탈·불법 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잠수기조합과 교분이 있는 J씨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며 "앞으로 행정 절차와 채취 과정에 걸림돌이 되면 언제든지 해촉할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장흥 연안 새조개 채취를 위해 관산을 4개 어촌계도 관산 연안 100여ha 규모의 관리수면을 지정 신청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장흥연안의 새조개 어장 분쟁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교직원 수업 집중”

광주교육청 학교 공모사업 축소

광주시교육청이 학교 교직원의 수업·생활교육 집중과 행정업무 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1학년도 학교 대상 공모사업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2021학년도 학교 대상 공모사업과 관련해 비슷한 성격의 사업과 연구회를 통합해 올해(72개)보다 31개(43%) 줄이기로 했다.

폐지되는 공모사업은 '단위학교 국제교류 학습 지원', '학교 문화혁신 확산을 위한 다함께 한걸음 프로젝트', '7560+운동 선도학교' 등이다.

'학교폭력 또래 상담 운영학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와 통합해 표준교육비 필수사업으로 전환된다.

'지속발전가능(다 가지 그린)교육', '학교 친한 경 텃밭 가꾸기 사업', '우수 학교스포츠클럽' 등은 수요조사 후 유지·통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모사업 온라인시스템을 정비해 학교별 자동입력과 다수의 첨부파일이 탑재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공모사업 온라인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추진 절차와 과정의 간소화로 학교·교육청 업무담당자의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동구, 세계적 '문화광장' 조성 성큼

옛 도청·문화전당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비 40억 확보

광주시 동구가 옛 전남도청과 아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도심 야간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15일 동구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광주시 예산안에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 사업으로 국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이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동구는 문화전당권 아시아문화광장 콘텐츠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문화광장 사업은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을 광주를 대표하는 세계적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하고, 유네스코 지정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에 걸맞은 도심야간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문화전당권역 '빛의 정원' 기반 조성에 핵심 콘텐츠가 될 '빛의 분수대 조성사업' 등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동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5·18민주광장을 비롯한 문화전당권역을 K-민주주의와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문화광장으로 조성할 경우 제주의 '빛의 벵커', 프랑스의 '바스티유 광장' 등에 비견할 만한 광주만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광주시, 5·18민주화 운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력 속에 아시아 문화광장을 광주 대표 야간관광 명소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전남교육청, 특수교사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 마쳐

전남도교육청이 특수교사들의 특수교육 교육 과정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교수학습의 질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온라인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실 수업 개선, 특수교육대상자 특성 요구에 적합한 진로·직업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합교

육 대신 온라인 라이브 방식으로 운영됐다.

교사 80명이 참여한 이번 연수는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초다지기'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으로 수업 설계하기' 등 두 가지 주제로 열렸다.

특수교육 전공 장학사와 현장 교사들을 강사로 초빙해 내실 있고, 활용 가능한 현장 중심의 다양한 사례와 자료 제공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돼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의 온도' 올려 주세요 15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10도를 웃돌고 있다. 이날 기준 약 4억 3000만원이 모금된 가운데 올해 희망 나눔캠페인 목표 금액은 42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 목표액 55억 200만원보다 23.5% (12억 9200만원)나 줄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가수 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내주 최종 결정

조선대학교가 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15일 조선대에 따르면 대학연구윤리원은 최근 홍진영의 석사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자문 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선대에학원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대학원은 홍진영 측에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의

가 있을 경우 해당 기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취지다.

대학원 위원회는 홍씨 측이 이의제기할 경우,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다음 주 내에 표절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홍씨의 석박사 학위 취소 여부와 관련된 주요 사항은 행정적 절차를 의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중 기자 chae@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저작권 서비스 지원

저작권 상담·등록지원

저작권 자문 컨설팅 지원

저작권 육성 지원

SW자산관리체계컨설팅

지원기간
매년 1월 ~ 12월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모집

지원대상
전라남도 소재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ICT·콘텐츠 기업 등)

문의
전화 : 061-339-6994
이메일 : pjy@jcia.or.kr